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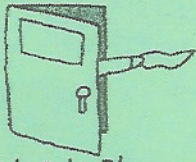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19주일
제28권 37호(가해) 2008·8·10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묵상]

눈물이 쉬우니
이별이 어렵겠습니다.
나고 죽고 참
만만하지 않지요...



누구나 오는 길...
누구나 가는 길...

구상렬 하상 바오로 · 만화가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이며 우리가 나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분, 하느님께서
흠으로 사람을 만들어 숨을 주시어 살게 하셨으나
“흠에서 왔으니, 흠으로 돌아가라.”고 하신다.
정녕 천 년도 주님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야경의 한때와도 같은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끌어 내시면
그들은 사라져 가는 풀과도 같아서
아침에 돌아났다,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린다.
인간의 햇수는 칠십 년! 근력이 좋으면 팔십 년!
그나마 자랑거리라 해도 고생과 고통이니
우리는 나는 듯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때 이르게 죽더라도 안식을 얻는다.
영예로운 나이는 장수로 결정되지 않고,
살아온 햇수로 셈해지지도 않는 법이다.
사람에게는 예지가 곧 백발이고,
티 없는 삶이 곧 원숙한 노년이다.
인생의 맛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눈물도 걱정도 두려움도 아니라
오직 주님께 대한 굳센 믿음임을 잊지 말라.(人)

미사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종 강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떼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최효선 안젤라, 배베드로와 전모니카, 김정숙 마리아
	(생)민석준 토마스, 민영준 마르코, 김풍길 바오로, 엄은섭 도로테오, 방아나스타시아, 변정선 안젤라, 이민현 베네딕도, 이영호 사도요한, 김혜린율리아나
주 일 낮 미사	(연)정진표, 이현호 요한, 정윤봉 베드로, 라상옥, 정형두 바오로, 민요한과 마리아, 이은완 야고보, 김인영 베드로, 이영자 마리아, 강영운 요셉, 강양근, 강용길, 고준희 제임스, 변세연 대건안드레아
	(생)이금순 마리아, 이종민 요셉, 엄은섭 도로테오, 이정훈 안셀모와 회운 도미니카, 이유미, 이유진 대건안드레아, 김세종 안드레아, 김리키, 김바다 비비안, 이은지 수산나, 윤선희 로사, 권피데스와 리디아 가정, 이명순 아가다, 박야고보와 신엘리사벳 가정, 장정숙 크리스티나, 정그레이스와 김토마스 가정, 박기대 벨라도, 윤희동 안토니오와 남열 세라피나의 은인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열왕기 상권(1 Kings) 19,9-11-13-1

- 화답송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보이소서.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
- 주 하느님 말씀을 내 듣고 싶사오니, 당신의 백성과 성도들에게 정녕 평화를 말씀하시나이다.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정녕 가까우니 당신의 영광이 우리 땅에 계시게 되리라.◎
- 자비와 충성이 마주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함께 입맞추리라. 땅에서 충성이 움터오르면,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주께서 행복을 내려주시면, 우리 땅은 열매를 맺어주리라.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나가면 구원은 그 걸음을 따라가리라.◎

제 2독서 로마서(Romans) 9,1-5

-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복음 마태오(Matthew) 14,22-33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기려라. 주님께서는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시도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83	183
봉헌	400	269,241
성체	내가 살아가는 이유	303,302
파견	372	245

16. 입문성사: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 견진성사의 의미와 효과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에게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성령의 은총을 베푸는 예식이 '견진성사'이다. 견진성사는 주교의 안수(按手)와 기름을 바르는 도유(塗油) 예식으로 이루어진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새 신자들에게 안수하여 세례의 은총을 완성시키는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사도 8,15-17; 19,5-6 참조) 도유 예식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설명하여 준다. 견진성사를 받는 사람은 이 도유 예식으로 성령의 인호를 받는다. 이와 같이 안수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을 전해 주는 상징적 행위이며, 도유는 우리가 하느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견진성사로 하느님의 은총을 더욱 풍성하게 받아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전파하고 몸소 실천하며, 교회 공동체에 충실히 봉사하는 일꾼이 된다.

▶ 성령의 성사인 견진성사

견진성사는 우리에게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는 '성령의 성사'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사도 1,8) 하고 말씀하셨다. 사도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사도 2,1-4) 그 후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자 성령을 받게 된다.(사도 8,17 참조). 이와 같이 견진성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세례성사를 완성하는 성사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부하고 다양한 선물들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다.(로마 8,26-27; 1코린 12장; 2코린 13,13; 콜로 1,8 참조) 견진성사를 통하여 성령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는 지혜(슬기), 통찰(깨달음), 의견(일깨움), 용기(굳셈), 지식(앎), 공경(효경), 외경(두려워함)의 일곱 가지이며(이사 11,2-3 참조), 바오로 사도는 공동체의 발전에 봉사하는 성령의 은사로 "지혜, 지식, 믿음, 치유, 기적, 예언, 식별, 방언, 해석"의 아홉 가지(1코린 12,8-11)와 성령의 은사가 맺어주는 열매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갈라 5,22-23)의 아홉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 견진성사의 집전자와 배령자

견진성사는 주교가 직접 거행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주교의 위임을 받은 신부도 베풀 수 있다. 주교가 견진성사를 집전하는 것은 견진 받는 신자들을 교회와 더욱 결합시키고, 교회가 사도로부터 이어 온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증언하여야 할 사명을 잘 드러내 준다. 배령자는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로서 일반적으로 12세가 넘고 교리교육을 충분히 받아 교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자세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견진성사 후보자도 대부/모를 정하는데, 세례성사 때의 대부/모를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CBCK 제9공)

물위를 걷자

홀로 산에 오르시어 따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서는 역풍을 만나 파도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 곁으로 물위를 걸어오셨다. 옴은 하느님을 일컬어 “바다의 등을 밟으시는 분”이라 한다(욥기 9,8 참조). 베드로가 주님을 믿고 있는 동안에는 그분처럼 물위를 걸어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자 그만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베드로의 외침에 예수님은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며 그를 붙잡아 주셨다(마태 14,29-31).

백령도로 가는 여객선이 심한 파도로 몹시 흔들리고 있었다. 180여 명의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뱃멀미를 하고 아이들은 울기도 했다. 승무원들도 긴장하고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태연히 눈을 감고 묵주기도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풍량이 심하고 배가 위험해요...” “아무 걱정 없어요. 큰딸을 만나러 가는데 배가 섬에 잘 닿으면 큰딸을 만날 것이고 배가 물 속으로 빠지면 석 달 전에 몹쓸병으로 죽은 막내딸을 만날 것인데... 모든 것을 하느님 손에 맡겨야죠.”

젼마 할머니 같은 믿음만 있다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는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100이라고 하면 나의 믿음은 90, 75, 50(?)...

믿음이란 마음 속의 얇이요, 증거의 태두리를 넘어서는 얇이다. 겨자씨만한 살아 있는 믿음을 구하고 길, 진리, 생명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겠다. 믿음의 가치를 체험한 이들의 말씀을 들어보자.

오로지 믿기만 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분의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믿기 위해 하는 것이 인간적이라면

알기 위해 믿는 것은 신성에 가깝습니다(성 아우구스티노).

바르고 확실한 단 하나의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은 덕에 나아가려는 사람의 길입니다. 감성의 온갖 것이 제 아무리 뛰어나도 사사로운 온갖 빛에 눈을 감고 걸어야 할 길입니다. 어둠 속에 있어도 믿음과 희망 안에 사십시오. 어둠 속에서도 하느님은 당신을 지켜 주십니다. 걱정일랑 하느님께 떠맡기십시오. 당신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십자가의 성 요한).

믿음은 하느님의 선물이다. 마치 생명이 하느님의 선물이고 역사가 하느님의 선물인 것처럼... 그 삶은 본질적으로 어둠 속의 도약이며 더 똑똑히 말하자면 볼 수 없는 하느님께 대한 도약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까를로 까레또).

믿어라. 그러면 너는 하느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기적이나 표징을 요구하지 마라. 먼저 믿어라. 그러면 나는 네가 애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너에게 더 위대한 일을 행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리라(존 포웰).

믿음은 겸손을 전제로 하고, 믿음은 기다릴 줄 알며, 깊이 있는 신뢰이다. 경험보다는 믿음이 진리를 더 빨리 파악한다(칼틸지브란).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히브 11,6).

◆박문식 베네딕토 신부<폰벤뚜알 프란치스코회 관구장>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신덕례 테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태호 바오로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서용숙 에스텔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1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현 시몬	정미영 미카엘라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김정은 젼마	배재일 미카엘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배영민 아나스타시아	권순길 체칠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1,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8월15일(금)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는 오전 8시30분과 오후 7시30분에 봉헌합니다. 이 날은 의무 대축일로 교우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미사에 참여합니다.

배론 청년회 소식

- ◆ **야유회**
 - 일시 : 8월10일(주일) 오전 10시~오후 5시30분
 - 장소 : 허모사 비치
 - 토요일 청년미사 마친 다음날이니 많이 참석해주세요.
- ◆ **피정지원 기금마련 팔빙수 판매**
 - 8월17일(주일) 낮11시미사 마친후 천교장
 - 문의 : 최태훈 아오스딩 회장 ☎ (310)508-2123

- ◆ **주일학교 교리교사 연수**
 - 일시 : 8월16일(토) 오전 9시30분~오후5시30분
 - 장소 : 백삼위 성당 강당
 - 강사 : 정브라이언 신부
- ◆ **목요 예비자 교리반(성탄반) 모집 안내**
올 성탄절 세례를 준비하는 새 신자를 모집합니다. 주변에 아직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이웃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 환 영 식 : 2008년 8월17일(주일) 11시 미사 중
 - 교리일정 : 2008년 8월21일(목)~ 2009년 1월15일까지
 - 세례식 : 2008년 12월24일 성탄전야
 - 신 청 : 사무실에 비치된 소정양식 작성 후 접수
☎ (310)227-1230 서병교 라파엘(복음화분과위원장)

- ◆ **캘리포니아 주정부 건강보험 Healthy Family 소개 세미나**
 - 일시 : 8월17일(주일) 오후 1시, 유아실
 - 문의 : 박홍룡 요셉 사회복지분과위원장 ☎ 283-5879

- ◆ **본당 연령회 개편에 관한 안내**
그동안 본당 신심단체의 장으로 당연직 연령회원을 구성해 운영해 왔으나 2008/2009년부터는 연령회의 실무자 구성으로 운영코자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령회장 : 김정웅 요한 ● 부회장: 최성자 카타리나, 이용식 베드로 ● 총무 겸 재무 : 윤희동 안토니오
 - 당연직 회원(각신심단체): 레지오 최기남 야고보, 빈첸시오 차인수 안드레아, 꾸르실료 최귀환 펠릭스, 양업회 김찬구 요한, 대건회 정동호 하상바오로, 전례분과위원장 김명숙 루실라, 레지오 최옥희 데레사

-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 중입니다.**
 - 접수날짜 : 9월7일까지 매주일 미사 전후
 - 대 상 : 유치부(K)~12학년까지
 - 등록비(1년분) : 첫째아이 \$100, 둘째 \$80, 셋째 \$60.
 - 자모회비 : 한 가정당 \$40
 - ※ 이번 학기부터는 LA교구 요청에따라 liability 문제로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주일학교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310)780-0369 강아네스 교장

- ◆ **난치병 개인상담 및 무료 시술**
 - 기간 : 8월 매주일 오전 8시30분~11시, 1층 회의실
 - 담당 : 권진열 피데스 요셉회 총무 ☎(310)800-3592
 - 병종 : 반신마비된 분, 정신질환청소년, 치매치료 및 예방

- ◆ **남가주 한인 M.E. 제62차 주말 참가자 모집**
 - 일시 : 9월5일(금)~7일(주일), 요셉마리아 피정센터(P.V.)
 - 참가비 : \$300(\$100은 M.E.기금으로 지원)
 - M.E.대표부부: 최상만 사비노 & 양숙 안젤라 ☎ 540-9230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8월10일(주일) : 고 박석규 베르나르도 남의 부인 박진심 마틸다 자매가 교우들에게 감사의 점심을 대접합니다.
 - 8월17일(주일) : 토런스 서 2반 (도시락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덕희	강숙경	권진열	김관기	김기정	김상익
	김선영	김선제	김윤진	김정웅	김중섭	김형순
	남명자	노혜숙	문충한	민기남	민봉식	박기돈
	박순자	박영룡	박정희	박주현	박준구	박태준
	박희자	방세훈	서성용	소성덕	안재만	엄정자
	오일순	유인섭	유정복	유희연	육재민	윤석구
	윤희동	이경용	이광우	이귀분	이근모	이명자
	이연행	이영숙	이은록	임송죽	임현기	장숙환
	장영우	조영희	조윤영	주대중	주대청	최길주
	최태훈	한혁수	홍석철	황학수	영희가보라	
	합계 : \$6,110					
미사헌금 : \$2,875.60						

성전헌금	강숙경	권진열	김관기	김기정	김선영	김선제
	김윤진	김중섭	김형순	남명자	노혜숙	문충한
	민기남	민봉식	박순자	박영룡	박정희	박주현
	박준구	박태준	박희자	방세훈	서성용	소성덕
	안재만	엄정자	유정복	유희연	육재민	이경용
	이광우	이귀분	이근모	이명자	이영숙	이은록
	임송죽	임현기	장숙환	장영우	조영희	조윤영
	주대중	주대청	최길주	한혁수	홍석철	
	영희가보라					
	합계 : \$3,950					

이 주간의 축일 (8월10일~8월16일)

◎ 축하합니다. ◎

- 10일 : 라우렌시오 순교자, 아스테리아 동정 순교자, 바사 동정 순교자, 재몬시오 순교자
- 11일 : 클라라 동정녀, 티부르시오 순교자, 타우리노 순교자, 베드로 파브레, 수산나 동정 순교자, 엘리자 동정녀
- 12일 : 클라우디오 순교자, 힐라리아 순교자, 디나 순교자, 아니체토 순교자, 요안나 프란치스카 드 샹탈 수도자
- 13일 : 히폴리토 사제 순교자, 폰시아노 교황 순교자, 가시아노 주교 순교자, 라데곤다 황후, 켈톨라 순교자, 콘코르디아 순교자
- 14일 : 막시밀리아노 콜베 사제, 갈리스도 교황 순교자, 예우세비오 증거자, 우르시치오 순교자, 아타나시아 수절
- 15일 : 달치시오 순교자, 루페르토 원장, 림바니아 동정녀, 아르놀포 주교, 나폴레옹 순교자
- 16일 : 스테파노 왕, 로코 증거자, 티토 순교자, 아르사치오 증거자

남가주 소식

◆ FIAT가족 미사 & BBQ 파티

- 일시 : 8월10일(주일), 오후 5시
- 장소 : 애나하임 성 토마스 한인성당 ☎(714)772-3995
- 대상 : 북미주 한인 가톨릭 리더양성에 동참해주신 FIAT 패밀리와 모든 신자 여러분.

◆ 예수회 송봉모 신부 초청 신앙강좌

- 일시 : 8월16일(토) 오후 6시30분~9시
8월17일(일) 오후 7시40분~10시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본당(2625 S. Vermont Av.)
- 주제 : 첫째날-부르심과 응답(평신도로서의 사명)
둘째날-생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창립40주년 기념 신앙강좌

◆ 꽃동네 미국진출 10주년 감사미사와 가정성화 피정

- 일시 : 8월2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St. Emydius Church (린우드 꽃동네옆)
10900 California Av. Lynwood
- * ☎ (951)302-3400 데미쿨라 꽃동네

◆ 2008년 제21회 남가주 성령채신 대회

- 일시 : 8월23일(토) 오전 8시~오후 10시
24일(주일) 오전 8시~오후 5시30분
- 장소 : LA Technical collage, Grand Theater
- 강사 : 전달수 신부(남가주사제협의회회장), 임언기 신부(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이태석 신부(살레시오수도회), 김두진 신부(예수고난회), 반영익 신부(성령채신봉사회지도)
- * 참가비 : \$25, ☎(213)435-7570

이번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남명자 데레사 328-0847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박선화 안나 325-3888 8/16(화) 오후 7시
	3	한길선레 스프라스타카 782-1025	한길선레 스프라스타카 782-1025 8/22(금) 오후 8시, 성당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박정애 데레사 618-8499	김주량 요한 782-8549 8/2(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톤 619-7763	이상규 다니엘 542-8365 8/12(화) 오후 7시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엄영숙 마리아 373-5662
	2	박희자 마리아 791-3703	박희자 마리아 791-3703 8/12(화) 10:30am 히코리팍
	3	강은진 켈마 214-2290	강은진 켈마 214-2290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최미열 클라라 324-0735 8/8(금) 오후 7시
	3	대진희 : 거주지 역만으로 배속	대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은 거주지역만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올리아 365-472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8/17(주일) 오전 11시, 샌퍼드로팍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2반 합동 반모임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8/15일(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숙희 유소사 544-4807 8/15(금) 오후 7시30분, 성당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8/15일(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8/15일(금) 오후 7시30분, 성당

◎ 바오로 사도, 그는 누구인가? (2) ◎

성 바오로 사도 탄생 2000주년 '바오로 해' (2008년 6월28일~2009년 6월29일)

바오로 사도는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 버리려고 하였습니다.”(갈라 1,13)라고 고백했다.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은 백성들 가운데서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키는 스테파노를 체포해 최고의회에 넘기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사도 6,11)는 죄목으로 돌팔매질해 죽였다. 사울은 현장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다. 그는 스테파노를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울은 보통의 유대인들처럼 스테파노가 그리스도에 관해 증언하고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키는 것에 크게 반발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를 없애 버리려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다.(사도 8,3) 그는 유대교의 호위병처럼 활동했다. 그가 그리스도교를 박해한 이유는 사실 율법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의 눈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율법과 유대 전통을 뒤흔드는 위험한 사람들이었다. 열성적인 바리사이파 유대인이었던 사울은 이 같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보고 격분했을 것이다. 바오로의 유명한 회심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사도 9,2)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에 일어난다.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며 정점이 되었다.

사울과 그 일행이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번쩍이며 사울의 둘레를 바쳤다. 그리고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은 땅에 엎드려 두려워 떨며 말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장차 네가 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모든 일에 관하여 거기에서 누가 너에게 일러 줄 것이다.”(사도 9,3-6)

바오로는 주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눈부신 빛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었다. 줄지에 소경이 된 바오로는 일행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다. 바오로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는데, 그동안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난생 처음 당한 일에 그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다. 그는 사흘 동안 어둠 속에서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리고 자신이 여태껏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길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렬한 빛과 함께 만났던 예수님,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신 분이셨다. 그런데 또한 그분은 분명히 자신 앞에 살아 계셨다. 그는 비로소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마치 철쭉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느낌이었다. 동시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세계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말았다. 그 순간 바오로는 새로 태어나는 느낌이었다. 강철같이 단단한 사나이, 바오로의 두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는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후 바오로는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다. 그의 놀라운 업적과 활동자체가 그리스도 현존의 기적이 되었다.

바오로 사도는 다마스쿠스 사건으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된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를 분노케 했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회심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다. 세 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열렬하게 복음을 선포했다. 그리스도교를 철저히 박해하던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당연히 유대인들의 의심과 비난, 미움을 받았다. 또한 교회 내적으로도 끊임없이 “당신에게 사도의 자격이 있는가?”라는 곤혹스런 질문을 받아야 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돌팔매질을 당하고, 감옥살이도 했다. 교회 안팎으로 공격과 비난을 받았지만 복음에 대한 그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다.

바오로는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회 역사상 인류 복음화의 최고 사도이다. 그가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와 감동적인 삶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